

[종합·해설]



<9> 농림부

8·15 광복 이후 미군정 초기에 농상국으로 출발, 농무국, 농부부를 거쳐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농림부로 개편됐다. 이후 1973년 농수산부로, 1987년 농림수산부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96년 8월 해양수산부의 신설로 지금의 명칭인 농림부로 개칭됐다.

농림부와 전신 부처인 농수산부, 농림수산부 수장은 호남 인맥이 사실상 독차지했다. 전남과 전북이 농도인데다 권력 핵심부처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남정권에서 지역안배 차원으로 호남출신 인사들 적극 기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농림부의 호남인맥 편중은 타 부처에서의 호남인맥 소외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영남 정권에서의 지역적 편중 인사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케

農道 호남 우대... 역대 '떼논 자리'



힘있는 자리 다 뺏겨도 5공~참여정부 장관만 14명 유일하게 호남인맥 강세...현 고위급 32명 중 13명

이스로 꼽히고 있다.

우선 제5공화국부터 문민정부까지 기용된 농수산부, 농림수산부, 농림부 장관 16명 가운데 호남 인맥은 무려 10명에 이르렀다.

전남 출신은 윤근환, 김식, 허신행, 김양배, 최인기, 강운태, 정시채, 이효계 장관 등 8명에 이르렀다. 강운태씨는 농림수산부 및 농림부 장관을 한 차례씩 맡았다.

전북 출신은 강현욱씨와 농수산부 및

농림수산부 장관을 각각 맡은 바 있는 황인성씨 등 2명으로 나타났다. 고건씨 도 5공 초반 농수산부 장관을 맡았다.

영남인맥은 박종문, 김주호, 조경식 장관 등 3명으로 집계됐으며, 충청 출신의 조정택, 제주 출신의 강보성씨도 장관을 역임했다.

이에 반해 차관은 영남 인맥이 강세를 보였다. 호남 출신이 장관직에 잇따라 진출하면서 차관은 영남인맥이 차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12명의 차관 가운데 7명이 영남 출신이었으며, 충청 출신 3명, 전북 출신 2명 순이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도 농림부 장관에는 호남 인맥이 강세를 보였다. 3명의 장관 가운데 전남 출신인 김성훈, 한갑수

씨가 수장을 맡았으며 영남 출신 1명(김동태)로 나타났다. 4명의 차관 가운데서는 영남 출신이 2명, 전남 출신이 1명(안종운), 충청 출신 1명으로 집계됐다.

참여정부의 농림부 장관 3명 가운데 전남 출신은 김영진, 허상만씨 등 2명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는 영남 출신의 박홍수씨가 수장을 맡고 있다. 차관 4명 가운데서는 영남 출신이 3명, 전북 출신이 1명(이명수)으로 나타났다.

제5공화국부터 참여정부까지의 농림부 및 농림수산부, 농수산부 장관 22명 가운데 무려 14명이 호남 출신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민정부 말기(한강우 장관)부터 국민의 정부(한갑수 장관)까지 임용된 9명의 장관 모두가 호남 출신으로 나타나 농림부에서 호남인맥이 초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반증했다.

한편, 농림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3급 이상 고위공직자 32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모두 13명으로 나타났다.

전남 출신으로는 이용수 투융자평가

통계관, 김영규 비상계획관, 박현출 농업 구조정책국장, 최수일 식량정책국장, 김성민 농촌정책과장, 민동식 농업통상정책관, 정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배인태 국립종자관리소장 등 9명으로 집계됐다.

/입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현장과 시각 ■

부산에만 지역현안 있다?



박치경

정치부 차장

지난 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주자 2차 정책토론회 실황을 TV로 지켜보던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은 행사 말미에 벌어진 장면에 의해 하는 표정이었다.

교육·복지분야에 대한 토론회 마지막에 사회자는 각 주자들에게 부산·영남지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각 주자를

은 너도 나도 문제해결을 위해 빌고 나서겠다고 환답했다.

부산 토론회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약속'이 이어졌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울산시가 첨단산업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여전이 되면 당연히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줘야 한다. 부산·울산·경남을 합쳐 수도권과 대치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고 응혔다.

박근혜 전 대표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주민들을 세계로 연결시키기 위해 대통령에 취임하면 동남권신공항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뜻지막한 '공약'을 내걸었다. 또 남해안 관광자원 개발 계획에 대해 "개인적으로 구상중인 U자형 국토개발계획의 큰 축으로 특별법 제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진화 의원도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에 대해 "동천과 하알리아 시민공원과 연계 개발해야 한다"며 지역주민의 심중에 다가서려 했다.

반면 지난달 29일 광주 토론회에서는 지역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토론회에서 지역현안을 다루는 순서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다만 박 전 대표가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J프로젝트) 등이 잘 풀려야 한다고 의례적으로 짚었을 뿐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광주 토론회가 끝난 후 왜 지역현안을 다루지 않았느냐는 불만이 쏟아져 부산 토론회로부터 지역문제에 대한 주자들의 의견을 묻게 됐다. 앞으로 진행될 대선 주자들의 전국 순회 연설 때 지역현안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선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하는 토론회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해답과 공약을 내놓으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그럼에도 교육·복지가 주제였던 부산 토론회에서 지역현안을 공식적으로 끄낸 것은 매끄럽지 못했다.

한나라당 대선을 위한 첫 대규모 공식행사부터 지역차별이라는 불만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그토록 '호남찬가'를 불러왔던 한나라당이 광주에서 첫 토론회를 벌이고 난 후 벌어진 일이라서 더욱 그렇다.

앞으로도 지역별 순회토론회에서 해당지역 현안에 대해 죄다 거론할 예정이라면 한나라당은 호남 지역 현안 토론회를 별도로 가져야 한다.

/unipark@kwangju.co.kr



지금은 잔디밭 되었지만... 6·10 민주항쟁 당시 시민들이 뒤덮었던 서울 시청앞 광장이 잔디광장으로 변한 가운데 10일 이곳에서 열린 범국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20년전처럼 열을 지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이유 그룹 로비의혹' 염동연 의원 소환조사

제이유 그룹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9일 염동연 의원(중도개혁통합신당)을 피의자로 신분으로 8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제이유 그룹의 로비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직 의원이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검찰의 수사가 정치권으로 본격 확대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염 의원이 주수도 회장 측으로

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방문판매사업법 개정 등을 부탁받으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염 의원에 대한 조사는 8일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이뤄졌으며 염 의원은 제이유 측으로부터 금품 수수 및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한 관련 협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북한 인구 23,301,725명

작년比 0.785% 증가...평균수명도 71.92세로 늘어

美 중앙정보국 추산

북한의 총인구가 올해 7월을 기준해 2천330만1천725명이 될 것이라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추산했다.

9일 CIA 홈페이지에 게재된 '월드드래프트북'에 따르면 북한의 인구는 지난해 2천311만3천19명과 비교했을 때 0.785%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같은 수치는 2003년(2천246만6천481명), 2004년(2천269만7천553명), 2005년(2천291만2천177명)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다.

CIA는 북한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소개하면서 "(북한이) 지난해 7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같은 해 10월 핵무기 실험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의 인구에 대해 북·중 합영은 행인 화려(華麗)은행은 2004년 7월 현재 2천250만명으로, 남한 통계청은 2003년 현재 2천252만1천명으로 집계해 CIA 통계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발행한 2004년판 '조선중앙연감'은 2001년 현재 총인구를 2천314만9천명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해 7월 CIA의 추정치는 2천196만8천288명으로 북한의 집계보다 약 118만명 적었다.

/연합뉴스

그러나 1천명당 사망률은 올해 7.21명으로, 2005년 7.05명, 2006년 7.13명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 여성 1명은 평균 2.05명의 자녀를 낳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는 이와 함께 지난해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천800달러로 1%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CIA는 북한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소개하면서 "(북한이) 지난해 7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같은 해 10월 핵무기 실험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의 인구에 대해 북·중 합영은 행인 화려(華麗)은행은 2004년 7월 현재 2천250만명으로, 남한 통계청은 2003년 현재 2천252만1천명으로 집계해 CIA 통계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발행한 2004년판 '조선중앙연감'은 2001년 현재 총인구를 2천314만9천명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해 7월 CIA의 추정치는 2천196만8천288명으로 북한의 집계보다 약 118만명 적었다.

/연합뉴스

일본, 미국, 독일 수출중!!

산학협동 인체공학의 결정체!!

highway

Compressed Compressed Compressed

신사화 NK001 **캐주얼화(남) NK002** **캐주얼화(여) NK003** **러닝화(남) NK004** **러닝화(여) NK005**

▶▶ 맞춤식 기능성신발 - **Salu5®**

발을 내딛는 순간, 당신의 몸은 이미 운동과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발에 따른 기능성 신발은 발기력이 인자되는 부분의 높이를 다른부분보다 6mm 높게하여 뒤로 걷는 운동효과 및 간위증 등이 기능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첨단원료를 사용 내구성 및 단성회복력을 뛰어나며 아치부분 및 중족궁 형상등 발바닥의 중심이 되는 월을 자극하여 우리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형태의 크기에 따라 문대별로 설계하여 변형된 자세(무릎, 허리)교정에 도움을 줍니다.

본 제품은 발의 핵심부분을 고안, 설계하여 공중에서 걸는듯한 둥둥뜨는 편안함을 느낄수 있습니다.

광주/전라도 총판 및 대리점 모집

- 접수일자 : 2007. 6. 15 ~ 30
- 자격요건 : 유통 및 판매 유경험자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NK교액|주
NK Corp., Ltd.
대표전화 : 051)646-9512~3
<http://www.salu5.com>